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22.10 [18~23]

(가)

하룻밤 찬바람에 눈이 왔나 서리 왔나  
 어찌하여 온 세상이 백옥경이 되었는데  
 동창이 다 밝거늘 수정림을 걷어 놓고  
 거문고 비껴 안아 봉황곡을 연주하니  
 소리마다 그윽히 맑아 태공에 들어가니  
 파사 계수나무 아래 옥토끼도 돌아본다  
 유리 호박주를 가득 부어 권하니  
 유정한 향아도 잔 밑에 비치었다  
 청광을 머금으니 폐부에 흘러들어  
 호호한 흥증이 아니 비친 데가 없다  
 옷가슴 헤쳐 내어 광한전에 돌아앉아  
 마음에 먹은 뜻을 다 아뢰려 하였더니  
 심술궂은 뜬구름이 어디서 와 가리는가  
 천지가 깜깜하여 백물을 다 못 보니  
 상하 사방에 갈 길을 모르겠네  
 먼 봉우리 반쪽 끝에 옛 빛이 비치는 듯  
 구름 사이로 나왔더니 떼구름 미쳐 나니  
 희미한 한 빛이 점점 아득하여 온다  
 중문을 닫아 놓고 뜰가에 따로 서서  
 매화 한 가지 계수나무 그림자인가 돌아보니  
 처량한 암향이 나를 좇아 시름한다  
 성긴 발을 드리우고 동방에 혼자 앉아  
 금작경\* 닦아 내어 벽 위에 걸어 두니  
 제 몸만 밝히고 남 비출 줄 모르도다  
 비단 부채로 긴 바람 부쳐 내어 이 구름 다 걷고자  
 푸른 대나무로 천 길의 비를 매어 저 구름 다 쓸고자  
 장공은 만 리요 이 몸은 진토니  
 쓸쓸한 이내 뜻이 생각하니 허사로다  
 가뜩이나 시름 많은데 긴 밤은 어떠한가  
 전전반측하여 다시금 생각하니  
 영허 소장\*이 천지에 무궁하니  
 풍운이 변화한들 본색이 어디 가리  
 우리도 단심(丹心)을 지키어 명월 볼 날 기다리노라

- 최현, 「명월음」 -

\* 금작경 : 황금 까치를 조각한 거울.

\* 영허 소장 : 달이 찼다가 기울고, 없어졌다가 다시 생김.

(나)

무정히 서 있는 바위 유정하여 보이는구나  
 최령한 오인도 직립 불의\* 어렵거늘  
 만고에 굳게 선 저 얼굴이 고칠 적이 없구나 <제1수>

강가에 우뚝 서니 쳐다볼수록 더욱 높다  
 바람 서리에 불변하니 뚫을수록 더욱 굳다  
 사람도 이 바위 같으면 대장부인가 하노라 <제2수>

한마디 말도 없는 바위 사귄 일도 없지마는  
 고모 진태\*를 벗 삼아 앉았으니  
 세상에 이익되는 세 벗을 사귄 줄 모르노라 <제3수>

먹줄 없이 생긴 바위 어느 법도를 알라마는

높고도 곧으니 귀하게 보이는구나  
 애닦다 가히 사람이면서 이 돌만도 못하랴 <제4수>

탁연 직립\*하니 본받음 직하다마는  
 구름 깊은 골짜기에 알 사람 있어 찾아오랴  
 힘을 다해 오르면 기이한 구경거리 많으니라 <제5수>

- 박인로, 「입암이십구곡」 -

\* 최령한 오인도 직립 불의 : 가장 신령스런 우리도 의지하지 않고 곳곳이 서기.

\* 고모 진태 : 옛 그대로의 모습.

\* 탁연 직립 : 높이 곧게 섬.

(다)

어린 염소 세 마리가 달달거리며 보도 위로 주인을 따라간다.  
 염소는 다리가 짧다. 주인이 느릿느릿 놀 양으로 쇠 걸음을 걸으면 염소는 **종종걸음**으로 빨리 따라가야 한다. 두 마리는 긴 줄로 목을 매어 주인의 뒷짐 진 손에 쥐여 가고 한 마리는 목도 안 매고 따로 떨어져 있건만 서로 떨어질세라 열심히 따라간다. 마치 어린애들이 엄마를 놓칠까 봐, 혹은 길을 잃을까 봐 부지런히 따라가듯.

(중략)

주인의 뒤를 따라 석양에 보도 위를 걸어가는 어린 염소의 검은 모습은 슬프다. 짧은 다리에 뒤뚱거리는, 굽이 높아 전족한 청녀\*의 쫓기는 종종걸음이다. 조그만 몸집이 달달거리 추위 타는 어린애 모습이다. 이상스럽게도 위로 들린 짧은 꼬리 밑에 감추지 못한 연하고 검푸른 향문이 가없다. 수염이라기에는 너무나 양정한 **턱 밑의 귀여운 수염**, 그리고 게다가 이따금씩 어린애 목소리로 우는 **그 울음**, 조물주는 동물을 접지할 때, 이런 슬픈 유형도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페이터는 일찍이 사람들에게 “무한한 물상 가운데 내가 향수한 부분이 어떻게 작고, 무한한 시간 가운데 내게 허여된 시간이 어떻게 짧고, **운명** 앞에 네 존재가 어떻게 미소(微小)한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리고 기꺼이 운명의 직녀, 클로우드우의 베틀에 몸을 맡기고, 여신이 너를 실 삼아 어떤 베를 짜든 마음을 쓰지 말라.” 했다. 이 염소는 충실한 페이터의 사도다. 그리고 그는 또 “네 **생명이 속절없고**, 너의 **직무**, 너의 **경영**이 허무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치열한** 불길이 열과 빛으로 변화시키듯 하잘것없는 속사(俗事)나마 그것을 네 ㉠**본성**에 맞도록 동화시키기까지는 머물러 있으라.” 했다. **염소**가 그 주인의 뒤를 충충히 따르듯, 그리고 주인이 저를 흥정하고 있는 동안은 주인 옆에 온순하게 충실히 기다리고 서 있듯, 그리고 **길**가에 버려 있는 무척 시래기 옆에 세워 두면 **다투어 푸른 잎을 뜯어 먹듯**, 그리고 다시 끌고 가면 먹던 것을 놓고 충충히 따라가듯.

이 세 마리의 어린 염소는 오늘 저녁에 다 같이 돌아가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나오게 될 것인가, 혹은 그중의 한 마리는 숲 속으로 들어가고, 두 마리만이 가게 될 것인가, 또는 어느 것이 팔려 가다가 팔려서 껌질을 벗기고, 어느 것이 남아서 외롭게 황혼의 거리를 타달거리고 갈 것인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염소 자신도, 끌고 가는 주인도, 아무도 모른다. 염소를 끌고 팔려 다니는 **저 주인**은 또 지금 자기가 **걸어가는 그 길**은 알고 있는 것인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며 **염소가 지나간 그 보도 위로 걸어오는 것**이다.



- 윤오영, 「염소」 -

\* 진족한 청녀 : 발을 작게 하려고 발가락을 감은 청나라 여인.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설과 반어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 ② 동일한 색채어를 반복하여 대상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의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명령형 문장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거리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계절의 변화를 제시하여 대상의 순차적인 변모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2. ㉠, ㉡을 중심으로 (가), (다)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을 화자의 정서와 연결하여 '시름 많'음을 드러내고 있고, (다)에서는 ㉡을 글쓴이의 정서와 연결하여 '생명이 속절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에서는 ㉠을 자연물과 연결하여 '풍운'의 영속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고, (다)에서는 ㉡을 자연 현상과 연결하여 '치열한'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③ (가)에서는 ㉠을 화자의 태도와 연결하여 '단심'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고, (다)에서는 ㉡을 '염소'의 태도와 연결하여 '운명'을 따를 것을 강조하고 있다.
- ④ (가)에서는 ㉠을 시간적 배경과 연결하여 '긴 밤'의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고, (다)에서는 ㉡을 공간적 배경과 연결하여 '길가'에서의 외로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에서는 ㉠을 화자의 상황과 연결하여 '영허 소장'의 한계를 강조하고 있고, (다)에서는 ㉡을 '염소'의 상황과 연결하여 '직무'와 '경영'에 대한 거부감을 강조하고 있다.

3. (가)의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자연을 완상하는 것을 가로막는 대상이다.
- ② ㉡는 화자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도록 이끄는 기능을 한다.
- ③ ㉢는 화자가 처해 있는 비참한 모습을 나타낸다.
- ④ ㉣는 화자가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상이다.
- ⑤ ㉤는 화자가 동병상련의 심정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다.

4.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1수> : 초장에 드러난 화자의 감흥은 중장의 화자의 만족감으로 심화된다.
- ② <제2수> : 초장에 드러난 화자의 깨달음은 중장의 화자의 결심을 강화한다.
- ③ <제3수> : 중장에 드러난 화자의 행위는 중장의 화자의 태도로 이어진다.
- ④ <제4수> : 초장에 드러난 화자의 의문은 중장의 화자의 회의감을 유발한다.
- ⑤ <제5수> : 중장에 드러난 화자의 판단은 중장의 화자의 자기반성의 계기로 작용한다.

5.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전란의 경험이 바탕이 된 (가)와 (나)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형상화된 작품이다. (가)는 임금이 피란길에 오른 참담한 현실을 달이 구름에 가려진 상황에 비유하여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선정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인간이 본받을 만한 속성을 지닌 대상으로 바위를 인격화함으로써 바람직한 가치 회복을 희구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① (가)의 '긴 바람 부쳐 내어 이 구름 다 걷고자' 한다고 한 것을 통해 전란으로 인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가)의 '명월 볼 날 기다리노라'라고 한 것을 통해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임금이 선정을 베풀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나)의 '곧게 선 저 얼굴이 고칠 적이 없'고 '탁연 직립'하다고 한 것을 통해 인간이 본받아야 할 바람직한 품성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가)의 '심술궂은 뜬구름이 가리'고 '떼구름 미쳐' 난다고 한 것과 (나)의 '구름 깊은 골짜기에 구경거리 많'다고 한 것을 통해 전란으로 인한 참담한 현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가)의 '희미한 한 빛이 점점 아득하여 온다'라고 한 것과 (나)의 '사람이면서 이 돌만도 못하랴'라고 한 것을 통해 부정적 현실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군.

6. <보기>의 ㉠~㉣와 관련하여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 이 작품에서 작가는 ㉠ 염소의 모습을 묘사하며 염소에 대한 연민을 드러냈고, ㉡ 그 염소에게 일어날 일을 상상하며 염소의 주인에 대해 떠올린 생각을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 염소와 그 주인에 대해 사색한 내용을 자신과 결부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순차적 구성은 작가가 사색의 결과를 어떻게 글로 구조화할 것인지 계획한 결과입니다.

- ① ㉠ : 염소의 '종종걸음', '턱 밑의 귀여운 수염', '그 울음' 등을 서술한 것에서 작가가 염소의 모습을 묘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② ㉡ : 염소가 '다투어 푸른 잎을 뜯어 먹듯' 한다고 표현한 것에서 작가가 염소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존재에 대한 연민을 드러냈음을 알 수 있다.
- ③ ㉢ : 염소의 '내일 아침'에 대해 서술한 것에서 작가가 염소에 게 일어날 일에 대해 상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④ ㉣ : '저 주인'의 '걸어가는 그 길'에 대해 언급한 것에서 작가가 염소 주인의 운명도 염소의 운명처럼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⑤ ㉣ : '나'가 '염소가 지나간 그 보도 위로 걸어온다'고 한 것에서 작가가 염소와 그 주인에 대해 사색한 내용을 자신과 결부시켰음을 알 수 있다.



<보 기>

전란의 경험이 바탕이 된 (가)와 (나)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형상화된 작품이다. (가)는 임금이 피란길에 오른 참담한 현실을 달이 구름에 가려진 상황에 비유하여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선정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인간이 본받을 만한 속성을 지닌 대상으로 바위를 인격화함으로써 바람직한 가치 회복을 회구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읽기 전 활동

(가)와 (나) 시가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의 경우 참담한 현실을 자연 현상에 비유하여 작가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때, 달이 구름에 가려진 상황이 임금이 피란길에 오른 상황과 대응되므로 달은 임금을, 구름은 부정적인 현실로 해석하고 넘어간다면 좋겠습니다. (나)의 경우에는 인간이 본받을 만한 속성을 지닌 대상인 ‘바위’를 제재로 설정하여 인격화함으로써 인간이 지녀야 할 가치 회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가치 회복을 바라고 있다는 점 또한 알고 넘어간다면 좋겠습니다.

(가)

하룻밤 찬바람에 눈이 왔나 서리 왔나  
어찌하여 온 세상이 백옥경이 되었는데  
동창이 다 밝거늘 수정렴을 건어 놓고  
거문고 비껴 안아 봉황곡을 연주하니  
소리마다 그윽히 맑아 태공에 들어가니  
파사 계수나무 아래 옥토끼도 돌아본다  
유리 호박주를 가득 부어 권하니  
유정한 향아도 잔 밑에 비치었다  
청광을 머금으니 폐부에 흘러들어  
호호한 흥중이 아니 비친 데가 없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밤사이 눈이 온 겨울의 풍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겨울의 풍경 속에서 화자는 거문고를 비껴 안고 봉황곡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거문고 소리가 맑아 달에 있는 계수나무 아래 옥토끼도 돌아본다고 이야기하는데, 유리잔에 호박주를 가득 부어 권하니 향아의 모습도 비치는 듯 하다고 이야기하며 낭만적인 분위기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청광을 머금으니 폐부까지 흘러들어 달빛이 비치지 않은 곳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보기>에서 말했듯 달은 임금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러한 달빛이 온 세상에 비치는 것을 임금의 선정이 온 세상에 미치고 있다고 해석한다면 시 해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옷가슴 헤쳐 내어 광한전에 돌아앉아  
마음에 먹은 뜻을 다 아뢰려 하였더니  
심술궂은 뜬구름이 어디서 와 가리는가  
천지가 캄캄하여 백물을 다 못 보니  
상하 사방에 갈 길을 모르겠네  
먼 봉우리 반쪽 끝에 옛 빛이 비치는 듯  
구름 사이로 나왔더니 떼구름 미쳐 나니  
희미한 한 빛이 점점 아득하여 온다  
중문을 닫아 놓고 뜰가에 따로 서서  
매화 한 가지 계수나무 그림자인가 돌아보니  
처량한 암향이 나를 좇아 시름한다  
성긴 발을 드리우고 동방에 혼자 앉아  
금작경\* 닦아 내어 벽 위에 걸어 두니  
제 몸만 밝히고 남 비출 줄 모르도다  
\* 금작경 : 황금 까치를 조각한 거울.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화자가 광한전에 앉아 마음에 먹은 뜻을 이야기하려 하지만 어디선가 ‘심술궂은 뜬구름’이 와서 가리고 있습니다. 이는 <보기>에서 말했듯 참담한 현실을 달이 구름에 가려진 상황으로 비유하고 있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름이 달을 가리자 화자는 중문을 닫아 놓고 뜰에 서서 시름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위기에 고민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진 것을 시름하던 화자는 거울이 달을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거울을 걸어 보지만, 거울은 ‘제 몸만 밝히고 남 비출 줄 모르’는 존재입니다.

비단 부채로 긴 바람 부쳐 내어 이 구름 다 걷고자  
푸른 대나무로 천 길의 비를 매어 저 구름 다 쓸고자  
장공은 만 리요 이 몸은 진토니  
쓸쓸한 이내 뜻이 생각하니 허사로다  
가뜩이나 시름 많은데 긴 밤은 어떠한가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비단 부채로 긴 바람을 부치고, 푸른 대나무로 비를 매어 구름을 다 쓸어버리고 싶다고 생각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하늘은 몹시 길고,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니 이 또한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고민으로 시름하는 화자의 긴 밤은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점 또한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좋겠습니다.



전전반측하여 다시금 생각하니  
 영허 소장\*이 천지에 무궁하니  
 풍운이 변화한들 본색이 어디 가리  
 우리도 단심(丹心)을 지키어 명월 불 날 기다리노라  
 - 최현, 「명월음」 -  
 \* 영허 소장 : 달이 찻다가 기울고, 없어졌다가 다시 생김.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화자는 달이 가려진 상황에 전전반측하다 생각의 전환을 이루어 냅니다. 달이 원래 찻다가 기울고, 없어졌다 다시 생기듯 구름이 달을 가렸다고 해서 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떠올린 화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화자는 이러한 사실을 떠올리고 우리도 단심을 지키며 다시 달을 불 날을 기다리자고 하는데, 이는 <보기>에서 나온 내용으로 보아 임금을 다시 불 날을 기다리는 화자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작품 총평

시를 읽기 전에 <보기>를 보고 접근했다면 달이 임금을 의미하고 구름은 참담한 현실을 의미한다는 부분을 쉽게 해석해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화자가 느끼는 심리적 변화와 화자의 생각에 집중하며 읽는다면 시의 해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  
 무정히 서 있는 바위 유정하여 보이는구나  
 최령한 오인도 직립 불의\* 어렵거늘  
 만고에 곧게 선 저 얼굴이 고칠 적이 없구나 <제1수>  
 \* 최령한 오인도 직립 불의 : 가장 신령스런 우리도 의지하지 않고  
 곳곳이 서기.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화자는 ‘바위’를 바라보며 ‘유정’해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화자는 바위를 단순히 사물로만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보기>에서 말했듯 인간이 본받을 만한 속성을 지닌 대상으로 바위를 인격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 있는 바위를 본 화자는 뛰어난 우리도 의지하지 않고 곳곳이 서는 것은 어렵다고 이야기하며 항상 곳곳이 서 있는 바위의 특성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강가에 우뚝 서니 쳐다볼수록 더욱 높다  
 바람 서리에 불변하니 뚫을수록 더욱 굳다  
 사람도 이 바위 같으면 대장부인가 하노라 <제2수>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이번에는 강가에 우뚝 서있는 바위의 모습을 보고 높은 바위의 특성을, 바람 서리에 불변한 바위의 모습을 보고 굳센 바위의 특성을 발견하는 화자입니다. 이러한 바위의 모습을 보고 사람이 이러한 특성을 가진다면 ‘대장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기>에서 이야기했듯 바위가 인간이 본받을 만한 속성을 지닌 대상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는 바위 사귄 일도 없지마는  
 고모 진태\*를 벗 삼아 앉았으니  
 세상에 이익되는 세 벗을 사귄 줄 모르노라 <제3수>  
 \* 고모 진태 : 옛 그대로의 모습.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화자는 바위가 말 한마디도 하지 않기에 친구로 사귄 수는 없으나 바위의 속성인 불변함을 친구 삼아 앉는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앉아 있으니 세상에 이익이 되는 세 벗을 사귄 줄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화자의 모습입니다. 세 벗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바위의 영원함을 사귀으로써 세 벗과 사귀지 않는 모습을 통해 세속적 삶의 태도를 거부하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 가능합니다.

먹줄 없이 생긴 바위 어느 법도를 알라마는  
 높고도 곧으니 귀하게 보이는구나  
 애답다 가히 사람이면서 이 돌만도 못하랴 <제4수>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바위가 학문을 배웠을 리 없으니 법도를 알 수는 없겠으나, 바위가 높고도 곧으니 귀하게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학문을 배우는 존재로서 이 바위보다도 못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하는 화자입니다.

탁연 직립\*하니 본받음 직하다마는  
 구름 깊은 골짜기에 알 사람 있어 찾아오랴  
 힘을 다해 오르면 기이한 구경거리 많으니라 <제5수>  
 - 박인로, 「입암이십구곡」 -  
 \* 탁연 직립 : 높이 곧게 섬.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바위는 높이 곧게 선 속성을 지니고 있어 본받음 직하다고 생각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물론 바위가 구름 깊은 골짜기에 있어 찾아가기 힘들지만, 힘을 다해 오르면 기이한 구경거리가 많다면 찾아올 것을 권합니다.



#작품 총평

바위의 속성을 예찬하는 시입니다. 바위가 가진 속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속성이 화자의 시선을 통해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

어린 염소 세 마리가 달달거리며 보도 위로 주인을 따라간다.

염소는 다리가 짧다. 주인이 느릿느릿 놀 양으로 쇠 걸음을 걸으면 염소는 종종걸음으로 빨리 따라가야 한다. 두 마리는 긴 줄로 목을 매어 주인의 뒷짐 진 손에 쥐여 가고 한 마리는 목도 안 매고 따로 떨어져 있건만 서로 떨어질세라 열심히 따라간다. 마치 어린애들이 엄마를 놓칠까 봐, 혹은 길을 잃을까 봐 부지런히 따라가듯.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글쓴이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글쓴이는 주인을 쫓아가는 염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소는 다리가 짧아 주인이 느리게 걸어도 빨리 따라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염소 두 마리는 주인의 뒷짐 진 손에 목이 매여 쥐여 가고, 한 마리는 따로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 한 마리는 매여 있지 않아 도망가도 되지만 서로 떨어질세라 열심히 따라간다고 이야기하며 마치 엄마를 놓치거나 길을 잃을까 무서워하는 어린애들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뒤를 따라 석양에 보도 위를 걸어가는 어린 염소의 검은 모습은 슬프다. 짧은 다리에 뒤뚱거리는, 굽이 높아 전족한 청녀\*의 쫓기는 종종걸음이다. 조그만 몸집이 달달거리 추위 타는 어린애 모습이다. 이상스럽게도 위로 들린 짧은 꼬리 밑에 감추지 못한 연하고 검푸른 향문이 가없다. 수염이라기에는 너무나 앙징한 턱 밑의 귀여운 수염, 그리고 게다가 이따금씩 어린애 목소리로 우는 그 울음, 조물주는 동물을 점지할 때, 이런 슬픈 유형도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 전족한 청녀 : 발을 작게 하려고 발가락을 감은 청나라 여인.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글쓴이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글쓴이는 이렇게 주인을 쫓는 염소의 모습을 보고 마치 '청녀'의 종종걸음, 추위타는 '어린애' 모습과 같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꼬리밑으로 드러난 향문, 수염, 울음 등 염소의 모든 특징이 가엽고 슬프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염소의 모습을 보면서 '슬픈 유형'으로 생각하는 부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페이터는 일찍이 사람들에게 “무한한 물상 가운데 내가 향수한 부분이 어떻게 작고, 무한한 시간 가운데 내게 허여된 시간이 어떻게 짧고, 운명 앞에 네 존재가 어떻게 미소(微小)한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리고 기꺼이 운명의 직녀, 클로우드우의 베틀에 몸을 맡기고, 여신이 너를 실 삼아 어떤 베를 짜든 마음을 쓰지 말라.” 했다. 이 염소는 충실한 페이터의 사도다. 그리고 그는 또 “네 생명이 속절없고, 너의 직무, 너의 경영이 허무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치열한 불길이 열과 빛으로 변화시키듯 하잘것없는 속사(俗事)나마 그것을 네 본성에 맞도록 동화시키기까지는 머물러 있으라.” 했다. 염소가 그 주인의 뒤를 충충히 따르듯, 그리고 주인이 저를 흥정하고 있는 동안은 주인 옆에 온순하게 충실히 기다리고 서 있듯, 그리고 길가에 버려 있는 무청 시래기 옆에 세워 두면 다투어 푸른 잎을 뜯어 먹듯, 그리고 다시 끌고 가면 먹던 것을 놓고 충충히 따라가듯.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글쓴이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글쓴이는 염소를 보며 페이터의 이론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염소는 페이터가 주장한 이론을 상징하는 존재 같다고 생각한 글쓴이는 “하잘 것없는 속사나마 그것을 네 본성에 맞도록 동화시키기까지는 머물러 있으라.”고 한 페이터의 말을 떠올리며 염소가 주인을 따르는 모습이 마치 이와 같다고 해석합니다.

이 세 마리의 어린 염소는 오늘 저녁에 다 같이 돌아가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나오게 될 것인가, 혹은 그중의 한 마리는 숲 속으로 들어가고, 두 마리만이 가게 될 것인가, 또는 어느 것이 팔려 가다가 팔려서 꺾질을 벗기고, 어느 것이 남아서 외롭게 황혼의 거리를 타달거리고 갈 것인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염소 자신도, 끌고 가는 주인도, 아무도 모른다. 염소를 끌고 팔려 다니는 저 주인은 또 지금 자기가 걸어가는 그 길은 알고 있는 것인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며 염소가 지나간 그 보도 위로 걸어오는 것이다.

- 윤오영, 「염소」 -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글쓴이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글쓴이는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염소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글쓴이는 주인이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대해 알고는 걸어 가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보기에는 이상해 보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염소의 미래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갑자기 주인이 걸어가는 길까지 사고가 확장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하기보다는 '사고가 확장되었다'고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작품 총평

우연한 계기로 보게 된 염소와 주인의 모습을 두고 생각하는 글쓴이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수필의 경우 자칫 난해함에 빠져들어 굳이 해석하지 않고 넘어가도 될 부분에 매몰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예를 들자면 ‘저 주인은 또 지금 자기가 걸어가는 그 길은 알고 있는 것인가.’와 같은 부분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무슨 의미일지 고민하느라 쓸데없는 시간을 소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경우 해석을 하지 않고 넘어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③

① 역설과 반어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 역설적 표현과 반어적 표현은 (가), (나) 모두 드러나지 않습니다.

② 동일한 색채어를 반복하여 대상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색채어의 사용은 (가)의 경우에는 ‘푸른 대나무’와 같이 드러나고 있으나, 이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나)의 경우에는 아예 색채어의 사용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③ 의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부각하고 있다.

→ (가)의 경우 ‘어찌하여 온 세상이 백옥경이 되었는가’라며 눈은 날의 풍경이 매우 아름다움을, (나)의 경우 ‘애답다 가히 사람이면서 이 돌만도 못하랴’라며 무릇 사람이라면 돌조차 지키는 법도를 지키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④ 명령형 문장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거리감을 강조하고 있다.

→ (가)의 경우에는 명령형 어조가 드러나지 않고, (나)의 경우에도 명령형 어조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⑤ 계절의 변화를 제시하여 대상의 순차적인 변모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 (가)와 (나) 모두 계절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의 경우 ‘눈’이라며 겨울의 모습만이 드러나고, (나)의 경우에는 계절적 배경 자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2. ㉠, ㉡을 중심으로 (가), (나)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③

- ㉠ 본색
- ㉡ 본성

① (가)에서는 ㉠을 화자의 정서와 연결하여 ‘시름 많’음을 드러내고 있고, (나)에서는 ㉡을 글쓴이의 정서와 연결하여 ‘생명이 속절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 ㉠의 경우 본색은 ‘달’의 본색이므로 화자의 정서와 연결될 경우 ‘단심’의 정서가 드러나야 합니다. ㉡의 경우, 글쓴이의 정서와 연결하게 되면 ‘생명이 속절없’더라도 ‘본성에 맞도록 동화시키기까지는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② (가)에서는 ㉠을 자연물과 연결하여 ‘풍운’의 영속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고, (나)에서는 ㉡을 자연 현상과 연결하여 ‘치열한’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의 경우 자연물과 연결하여 ‘풍운’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 ㉡의 경우에는 자연 현상과의 연결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③ (가)에서는 ㉠을 화자의 태도와 연결하여 ‘단심’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고, (나)에서는 ㉡을 ‘염소’의 태도와 연결하여 ‘운명’을 따를 것을 강조하고 있다.

→ ㉠의 경우 달을 비록 지금은 구름이 가렸을지라도 달의 ‘본색’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단심’을 지켜 달이 다시 드러나기를 기다리겠다는 화자의 태도와 연결되어 ‘단심’을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의 경우 ‘염소’가 자신의 본성을 따라 주인을 따라가거나 주인 곁에서 기다리는 것밖 같이 ‘운명’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④ (가)에서는 ㉠을 시간적 배경과 연결하여 ‘긴 밤’의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고, (나)에서는 ㉡을 공간적 배경과 연결하여 ‘길가’에서의 외로움을 드러내고 있다.

→ ‘긴 밤’은 화자가 시름하게 하는 시간적 배경이고, ㉠에서는 화자가 달의 영속성과 구름의 일시성을 깨닫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긴 밤’의 절망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의 경우에는 공간적 배경인 ‘길가’와의 연결이 드러나긴 하지만, 외로움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⑤ (가)에서는 ㉠을 화자의 상황과 연결하여 ‘영허 소장’의 한계를 강조하고 있고, (나)에서는 ㉡을 ‘염소’의 상황과 연결하여 ‘직무’와 ‘경영’에 대한 거부감을 강조하고 있다.

→ ㉠의 경우 ‘영허 소장’의 영원성을 강조하는 부분이고, ㉡의 경우 ‘직무’와 ‘경영’이 허무하더라도 ‘본성’에 맞게 동화시킬때까지는 가만히 있으라며 ‘본성’에 대한 순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가)의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④

- ㉠ 찬바람
- ㉡ 봉황곡
- ㉢ 계수나무 아래 옥토끼
- ㉣ 금작걸
- ㉤ 장공

① ㉠은 화자가 자연을 완상하는 것을 가로막는 대상이다.

→ ㉠의 경우 단순히 화자가 세상을 ‘백옥경’이 되었다고 인식하는 이유인 ‘눈’을 내리게 한 원인입니다. 자연을 감상하며 즐기는 완상을 할 수 있게 한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② ㉡는 화자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도록 이끄는 기능을 한다.

→ ㉡의 경우 화자가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난 후 연주하는 노래로, 달에까지 닿을 정도로 좋은 소리가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과오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③ ㉢는 화자가 처해 있는 비참한 모습을 나타낸다.

→ ㉢는 화자의 거문고 소리에 돌아본 대상으로, 거문고 소리가 그만큼 아름다웠음을 드러낼 뿐입니다. 비참한 상황은 아직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④ ㉣는 화자가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상이다.

→ ㉣는 ‘제 몸만 밝히고 남 비출 줄 모르’는 대상입니다. 화자가 이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달’의 속성과 비교해 본다면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달’은 제 몸을 밝히고 남을 비추는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한다면 좋겠습니다.

⑤ ㉤는 화자가 동병상련의 심정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다.

→ 화자는 ‘구름’을 쓸어버리고자 했으나 ‘장공’이 너무 넓고 자신의 몸은 유한하여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는 화자의 소망을 가로막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4.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③

① <제1수>: 초장에 드러난 화자의 감흥은 중장의 화자의 만족감으로 심화된다.

→ <제 1수>의 경우 초장에 드러난 화자의 감흥은 중장에 드러나는 ‘최령한 오인’과의 비교를 통해 대단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자의 만족감으로 심화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② <제2수>: 초장에 드러난 화자의 깨달음은 중장의 화자의 결심을 강화한다.

→ <제 2수>에서는 초장과 중장 모두 바위의 속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화자가 초장과 중장에서 바위의 속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깨달음과 결심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기에 어렵습니다.

③ <제3수>: 중장에 드러난 화자의 행위는 중장의 화자의 태도로 이어진다.

→ 중장에 드러난 화자의 행위인 ‘고모 진태를 벗 삼아 앉았으니’를 통해 중장에서 ‘세 벗을 사귄 줄 모르노라’라는 태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모 진태’는 ‘옛 그대로의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이므로 화자는 이러한 바위의 모습을 좋아하여 바위를 친구로 두고 세 벗을 사귀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④ <제4수>: 초장에 드러난 화자의 의문은 중장의 화자의 회의감을 유발한다.

→ 초장에서 화자는 바위가 법도를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중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회의감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빠르게 찾아냈어야 하겠습니다.

⑤ <제5수>: 중장에 드러난 화자의 판단은 중장의 화자의 자기반성의 계기로 작용한다.

→ 중장에 드러난 화자의 생각은 중장에서 그래도 힘을 다해 오르면 기이한 구경거리가 많으며 산을 올라 바위를 한번 볼 것을 이야기하는 태도로 드러납니다.

5.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④

<보 기>

전란의 경험이 바탕이 된 (가)와 (나)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형상화된 작품이다. (가)는 임금이 피란길에 오른 참담한 현실을 달이 구름에 가려진 상황에 비유하여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선정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인간이 본받을 만한 속성을 지닌 대상으로 바위를 인격화함으로써 바람직한 가치 회복을 회구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① (가)의 ‘긴 바람 부쳐 내어 이 구름 다 걷고자’ 한다고 한 것을 통해 전란으로 인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다.

→ (가)의 ‘긴 바람 부쳐 내어 이 구름 다 걷고자’ 한다고 하는 것은 전란으로 인한 현실을 상징하는 ‘구름’을 걷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가)의 '명월 볼 날 기다리노라'라고 한 것을 통해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임금이 선정을 베풀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군.

→ (가)의 '명월 볼 날 기다리노라'라고 말한 것은 임금을 상징하는 '달'과 임금의 선정을 상징하는 '명'을 보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선정을 베풀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두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나)의 '곧게 선 저 얼굴이 고칠 적이 없'고 '탁연 직립하'다고 한 것을 통해 인간이 본받아야 할 바람직한 품성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군.

→ '곧게 선 저 얼굴이 고칠 적이 없'다는 것을 통해 바위의 일관성을, '탁연 직립하'다는 것을 통해 바위의 곧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본받아야 할 바람직한 품성으로, 화자는 이러한 품성을 '바위'에 빗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④ (가)의 '심술궂은 뜬구름이 가리'고 '떼구름 미쳐' 난다고 한 것과 (나)의 '구름 깊은 골짜기'에 '구경거리 많'다고 한 것을 통해 전란으로 인한 참담한 현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군

→ '심술궂은 뜬구름이 가리'고 '떼구름 미쳐' 난다고 한 것은 전란으로 인한 참담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름 깊은 골짜기'에 '구경거리 많'다고 하는 것은 화자가 오르기는 어려우나 오르면 볼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전란으로 인한 참담한 현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⑤ (가)의 '희미한 한 빛이 점점 아득하여 온다'라고 한 것과 (나)의 '사람이면서 이 돌만도 못하랴'라고 한 것을 통해 부정적 현실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군.

→ '희미한 한 빛이 점점 아득하여 온다'라고 한 것을 통해 '구름'이 '달'을 가리는 부정적 현실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경우 '사람이면서 이 돌만도 못하랴'는 말을 통해 '돌'조차도 갖고 있는 품성을 사람이 갖지 못하는 부정적 현실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보기>의 ㉠~㉣와 관련하여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보 기>

선생님 : 이 작품에서 작가는 ㉠ 염소의 모습을 묘사하며 염소에 대한 연민을 드러냈고, ㉡ 그 염소에게 일어날 일을 상상하며 염소의 주인에 대해 떠올린 생각을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 염소와 그 주인에 대해 사색한 내용을 자신과 결부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순차적 구성은 작가가 사색의 결과를 어떻게 글로 구조화할 것인지 계획한 결과입니다.

① ㉠ : 염소의 '종종걸음', '턱 밑의 귀여운 수염', '그 울음' 등을 서술한 것에서 작가가 염소의 모습을 묘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염소의 외관을 서술하는 부분을 통해 작가가 염소의 모습을 묘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짧은 꼬리 밑에 감추지 못한 검푸른 항문' 등의 특성 또한 있겠습니다.

② ㉡ : 염소가 '다투어 푸른 잎을 뜯어 먹듯' 한다고 표현한 것에서 작가가 염소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존재에 대한 연민을 드러냈음을 알 수 있다.

→ 염소가 '다투어 푸른 잎을 뜯어 먹듯' 한다는 것은 단순히 염소의 일상적인 생활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존재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③ ㉢ : 염소의 '내일 아침'에 대해 서술한 것에서 작가가 염소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 상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염소의 '내일 아침'에 벌어질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화자는 가능성을 생각해 봅니다. 이는 작가가 염소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 상상해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④ ㉣ : '저 주인'의 '걸어가는 그 길'에 대해 언급한 것에서 작가가 염소 주인의 운명도 염소의 운명처럼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저 주인'의 '걸어가는 그 길'에 대해 언급하며 '알고 있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표하는 것을 보았을 때 작가는 염소 주인의 운명 또한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⑤ ㉣ : '나'가 '염소가 지나간 그 보도 위로 걸어'온다고 한 것에서 작가가 염소와 그 주인에 대해 사색한 내용을 자신과 결부시켰음을 알 수 있다.

→ '나'가 '염소가 지나간 그 보도 위로 걸어'온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통해 작가가 염소와 주인에 대해 사색한 내용을 본인이 하는 행위와 연관시켜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